

〈일반논문〉

조선 전기 격동기 신숙주의 정치적 역할과 그 의미*

申炳周**

—〈목차〉—

- I. 머리말
- II. 수양대군과 함께한 중국행
- III. 세조 즉위 후 최고의 참모로 활약하다
- IV. 예종, 성종대에 원상으로 활약하다
- V. 신숙주에 대한 평가들
- VI. 맺음말

[국문초록]

세조는 왕이 된 후 집권의 명분과 도덕성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본정치, 부국강병책, 왕권의 재확립과 『경국대전』이나 『동국통감』과 같은 학술, 문화 정비 사업에 진력을 다하였고, 이것은 세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이 된다. 세조가 법주사, 상원사 등에 잦은 행차를 한 것 또한 왕권 강화와 민심 수습의 목적이 담겨 있었다.

세조에 대한 평가 기준에 따라 신숙주의 평가는 달라진다. 세조대에 확립된 왕권 강화와 정치적 기반은 성종대에 이르러 조선 전기 정치, 문화를 완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러한 업적의 중심에 신숙주가 있었다. 세조 집권 후에 신숙주

* 이 논문은 2018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는 병조판서, 우의정 등을 거쳐 1466년 영의정에 올라 세조를 적극적으로 보좌했다. 신숙주에 대한 세조의 총애는 신숙주를 나의 智將이라 일컫고, 나의 魏徵이라 하면서, 사관으로 하여금 이 말을 기록하도록 한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외교관으로서의 역량은 『해동제국기』의 저술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조선 전기 정치적 안정이 필요한 격동기에 신숙주는 세조가 추구한 중앙 집권과 왕권 강화, 민생 안정과 국방 강화 등의 정책 실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수양대군 시절부터 맺은 깊은 인연과 세조라는 왕에 대한 믿음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초기의 정치적 격동기를 잘 극복하고 빠른 기간 내에 정치적, 문화적으로 튼튼한 기반을 형성한 바탕에 신숙주와 같은 뛰어난 관료학자가 존재했음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신숙주, 수양대군, 세조, 관료학자, 『해동제국기』

I. 머리말

1452년 9월 수양대군은 단종의 즉위를 알리는 謝恩使가 되어 명나라로 향했다. 스스로 사은사를 자청하면서, 자신에게 권력욕이 없다는 것을 보이려는 정치적 의도도 컸다. 이때 수양대군을 수행해서 명나라로 간 인물은 나이도 동갑이었던 申叔舟(1417~1475)였다. 이 만남은 신숙주가 이후에 영원한 세조의 참모로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었고, 그는 단종의 폐위와 세조의 집권에 이르는 정치적 격변기의 중심에 서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신숙주는 변절자의 시각으로만 주로 인식되면서 過에 관한 부분이 강조되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르러 세조에서 성

종에 이르는 시기 국정정의 중심을 잡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의 功에 대한 재평가의 움직임이 많다. 신숙주는 음운학, 국방, 외교 등 워낙 여러 방면에서 많은 업적을 남겨 분야별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¹⁾ 신숙주가 활동한 문화공간에 대해 언급한 새로운 연구도 나왔다.²⁾ 그러나 세종대에서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큰 역할을 했던 신숙주의 면모를 체계적으로 수행한 연구는 많지 않다.³⁾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을 하여 실록과 『연려실기술』 및 『保閑齋集』 등 문집의 기록을 중심으로 신숙주가 세종 때 처음 정치에 입문하여 수양대군과 인연을 맺게 되는 과정과 함께, 세조 집권 이후 최고의 참모로서 수행한 정치적·학문적 업적, 그리고 예종과 성종대에도 국가 원로로서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갔던 활동들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숙주라는 인물을 통해 조선이라는 나라가 초반의 격동기를 헤쳐나가며, 정치적, 문화적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정리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본 연구가 신숙주라는 인물 연구를 넘어, 조선 전기 시대상을 파악하는데 일정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I. 수양대군과 함께한 중국행

신숙주의 자는 泛翁, 호는 保閑齋 또는 希賢堂, 본관은 高靈, 시호는 文

-
- 1) 김현옥, 「성삼문과 신숙주의 책문에 나타난 현실인식 비교」, 『한문학논집』 33, 근역한문학회, 2011; 남지대, 「신숙주 - 공신의 길을 택한 학자」, 『내일을 여는 역사』 6, 내일을 여는 역사, 2001; 손승철, 「해동제국기의 역사지리학적 연구」, 『강원인문논총』 1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 2) 이종목, 『조선의 문화공간』, 휴머니스트, 2006.
 - 3) 최근에는 신숙주의 참모 역할에 주목하면서 그가 수행한 업적에 대해 개관한 연구도 나왔다(신병주, 『참모로 산다는 것』, 매경출판, 2019).

忠이다. 아버지는 공조참판을 지낸 申檣(1382~1433)이고, 어머니는 知成州事 鄭有의 딸이다. 1417년(태종 17) 6월 13일 전라도 나주 오룡동에서 태어났다. 부친 신장은 공조참판을 지냈으며, 외조부도 공조참판을 지냈다. 신숙주의 형제들도 모두 뛰어난 사람들은 그들이 살았던 마을을 五龍洞이라고 바꾸어 불렀다고 한다.⁴⁾ 5세에 한양으로 올라온 신숙주는 7세에 尹淮(1380~1436)의 문하로 들어갔고, 1432년 16세 때 스승 尹희의 아들 尹경연의 딸과 혼인하였다. 스승 집안의 사위가 된 것이다. 1438년 22세의 나이로 진사시에 장원 급제하였으며, 이듬해 8월에는 생원시에, 9월에는 문과에 3등으로 합격하였다. 신숙주의 줄기에 “어려서부터 기량이 보통 아이들과 달라서 글을 읽을 때 한 번만 보면 문득 기억하였다. 正統 戊午年(1438년)에 세종이 비로소 詩賦進士를 두었는데, 신숙주는 초시와 복시에 연이어 장원을 하였다.”⁵⁾라는 기록에서 어린 시절부터 문장에 뛰어난 자질을 보인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典農寺 直長에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리가 牒文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직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당시 신숙주는 “官員은 실제로 첩을 전했지마는 내가 스스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며 오히려 두둔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파직될 수밖에 없었지만 많은 이들은 그의 덕을 크게 추앙했다.⁶⁾ 다행히 관직에 복귀하여 1441년(세종 23) 鑄字所 別坐가 되었으며, 이해 가을에는 세종의 명을 받아 집현전에서 일하게 되었다. 기존의 집현전은 유명무실했던 기관이었지만, 세종은 즉위 후 본격적인 학문연구 기관으로 삼고, 최고의 인재들을 불러 모아 연구를 시키고 그 성과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선

4) 안병희, 「신숙주의 생애와 학문」, 『10월의 문화인물』, 국립국어연구원, 2002, 7쪽.

5) 『성종실록』, 성종 6년(1475년) 6월 21일.

自少氣度異凡兒, 讀書一覽輒記. 正統戊午, 世宗始設詩賦進士, 叔舟連魁初, 覆試,

6) 『성종실록』, 성종 6년(1475년) 6월 21일.

叔舟悶之, 乃自誣服曰: “吏實傳牒, 我自不進.” 由是吏得全, 而叔舟罷, 人推其厚德.

순환 시스템을 정착시켰다.⁷⁾ 신숙주는 집현전의 대표 학자로 활약했다. 집현전에서 연구를 하다가 잠이 든 신숙주를 위해 세종이 담비 갓옷을 덮어준 훈훈한 미담도 전한다. “어느 날 밤 二更쯤에 내시를 시켜 숙직하는 선비가 무엇을 하는가를 가서 엿보게 하였는데, 신숙주가 바야흐로 촛불을 켜놓고 글을 읽고 있었다. 내시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서너 번이나 가서 보아도 글 읽기를 오히려 끝내지 않다가 닭이 울자 비로소 취침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를 가상하게 여겨서 담비 갓옷을 벗어 그가 잠이 깊이 들 때를 기다려 그 위에 덮어주게 하였다. 숙주는 아침에 일어나서야 이 일을 알게 되었고, 선비들은 이 소문을 듣고 더욱 학문에 힘을 쓰게 되었다.”는 기록으로, 서거정의 『필원잡기』나 『연려실기술』에 수록되어 있다.⁸⁾

1442년에는 세종이 집현전 학자를 위해 특별히 배려해 마련한 제도인 賜暇讀書⁹⁾의 혜택을 받아 성삼문, 이개 등과 북한산(삼각산) 津寬寺에서 휴식과 독서를 하였다. 『용재총화』에도 박팽년, 신숙주, 이개, 성삼문, 하위지, 이석형 등이 왕명을 받들어 사가독서를 하며 서로 지은 삼각산 聯句를 소개하고 있다.¹⁰⁾ 1443년에는 書狀官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병마에 시달리다가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가족들도 긴 여행을 우려했으나 신숙주는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다. 그의 나이 27세 때였다. 서장관은 학문에

7) 『국조방목』에 의거하면, 세종에서 단조에 이르는 시기 집현전을 거쳐 간 학자는 96명이었는데, 전원 문과 급제자였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6명이 5등 이내에 합격하였다.

8) 『연려실기술』 권3, 세종조 고사본말.

9) 賜暇讀書는 오늘날 유급휴가 제도의 기원에 해당하는데, 처음에는 집으로 보냈다가, 이후에 진관사로 보냈다. 성종대에 처음 독서당을 설치하여 ‘南湖’라 하였으며, 중종대에는 현재의 옥수동, 금호동 산자락에 독서당을 세우고, ‘東湖 독서당’이라 하였는데, 현재의 동호대교의 명칭도 이와 관련이 있다.

10) 성현 저, 김남이·전지원 외 옮김, 『慵齋叢話』, 휴머니스트, 2015, 200~222쪽.

뛰어난 젊은 학자가 주로 맡았는데, 通信正使과 副使에 이어 서열 3위에 해당하였다. 서장관은 외교뿐만 아니라 문장에 특히 뛰어난 사람이 임명되는 직책으로 세종이 집현전 학자 신숙주에게 큰 믿음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신숙주 일행은 7개월 기간 동안 외교적 목적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특히 대마도주와 체결한 癸亥約條는 당시 외교 현안이었던 歲遣船(일본이 해마다 보내는 배)과 歲賜米豆(해마다 바치는 쌀)의 문제를 각각 50척, 200석으로 해결한 것이었다. 한편 그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명성을 듣고 온 일본인들에게 즉석에서 시를 써 주어 그들을 감탄하게 했다는 일화가 전한다. 이때의 경험은 성종대인 1471년 『海東諸國記』의 저술로 이어진다.¹¹⁾

신숙주는 성삼문과 함께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에 가장 큰 힘을 보탠 학자였다. 1443년 12월에는 왕명으로 훈민정음 撰定에 참여했으며, 1444년 2월에는 왕명으로 議事廳에 나아가 正音으로 韻會를 번역하였다. 1445년 1월에는 집현전 부수찬으로 있으면서 성균관 주부 성삼문과 함께 세종의 명을 받들어 명나라 언어학자로 요동에 와 있던 黃瓚을 찾아가 韻書에 대해 질문을 하고 華音을 번역하여 五聲을 정하였다.¹²⁾ 1446년 9월 훈민정음이 완성되자 박팽년 등과 함께 해례를 지었다. 1447년 9월에는 『東國正韻』 6권을 편찬하기도 하였다.¹³⁾

11) 『해동제국기』는 신숙주의 서문과 7장의 지도, 「日本國紀」, 「琉球國紀」, 「朝聘應接記」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국기는 천황의 세계, 나라의 풍속, 8도 66주의 군현, 대마도 등의 항목으로, 「유구국기」는 국왕의 세계, 國都, 나라의 풍속, 道路里數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7장의 지도는 해동제국총도, 일본본국지도, 일본국서해구주지도, 일본국일기도지도, 일본국 대마도지도, 유구국 지도로서, 이 책의 제목 '해동제국'은 일본 본국을 포함한 부속 도서와 유구국임을 나타내고 있다.

12) 『세종실록』, 세종 29년(1445년) 1월 7일.

遣集賢殿副修撰申叔舟, 成均注簿成三問, 行司勇孫壽山于遼東, 質問韻書.

13) 『동국정운』은 신숙주가 쓴 서문만이 전해 오다가 194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첫째 권과 여섯째 권의 두 책이 발견되었는데, 현재 간송문고에 있다. 중종 때의 문

1450년 2월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한 후에도 국가적 편찬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1451년 완성된 『高麗史』 편찬에서는 列傳 부분을 주로 맡았으며, 1452년 2월에 완성된 『高麗史節要』의 편찬 작업에도 참여했다. 세종대에 편찬을 시작하여, 1451년에 완성한 『고려사』가 기전체 정사로 왕의 입장에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라면, 『고려사절요』는 편년체 형식을 취함으로써 신하들의 역할을 강조한 역사서로 평가받고 있는데,¹⁴⁾ 신숙주는 김종서, 정인지 등과 함께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편찬 작업에 참여했던 것이다. 1452년 문종이 승하하자, 신숙주는 문종의 행장을 撰進하였다. 문종은 승하 직전 김종서, 황보인 등의 誥命大臣(왕의 遺旨을 받드는 대신)을 불러 단종의 보필을 부탁했고, 단종 즉위 후 대신들의 위상은 커졌다. 세종에서 문종을 거치면서 틀이 잡힌 왕권과 신권의 조화는 무너졌다. “이번 정사에서 의정부 당상들이 매일 빈청에 나아가고, 이조와 병조의 당상이 의논에 참여하여, 제수는 臺省, 政曹, 연변 고을의 장수와 수령은 반드시 3인의 성명을 썼으나, 그중에 쓸만한 자 1인을 취하여 黃標를 붙여서 아뢰면 노산군이 다만 붓으로 낙점할 뿐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黃標政事’라고 일컬었다.”¹⁵⁾는 기록은, 왕이 제대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황표정사가 이루어졌던 당시 정치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종의 遺命으로 단종의 보필을 명받은 김종서, 황보인 등은 권력 기반

신인 심언광의 집안에 전해 오던 6권 6책의 전질본은 1972년에 강릉 심교만의 집에서 발견되어 현재는 건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건국대 박물관 소장본은 국보 142호로 지정되어 있다.

14) 한영우, 『조선전기 사학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1, 85~127쪽.

15) 『단종실록』, 단종 즉위년(1452년) 7월 5일.

是政, 議政府堂上, 每日詣賓聽, 吏, 兵曹堂上就議所, 除臺省, 政曹, 沿邊將帥及守令, 必書三人姓名, 取其中可用者一人, 付黃標以啓. 魯山但以筆點之而已, 時人謂之黃標政事.

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의 3남인 안평대군과 손을 맞잡았다. 권력욕이 강하고 야심만만한 수양대군보다는 조정의 대신들과도 비교적 친밀한 교분을 가진 학자풍의 안평대군이 편했기 때문일 것이다. 수양대군은 이러한 사태를 묵과하지만은 않았다. 왕권의 회복을 위해 절치부심하던 그를 대신들이 견제하기 시작하자, 수양대군은 자신에게 정치적 야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단종의 즉위를 알리는 謝恩使를 자청하고 명나라로 갔다. 신숙주는 이 길을 수양대군과 동행했고, 두 사람은 혈맹이 되었다. 이 전부터 두 사람의 마음이 통했음은 실록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1452년 8월 10일 수양대군은 집 앞을 지나가는 신숙주를 불러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수양대군은 “옛 친구를 어찌서 찾지 않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지 오래였다. 사람이 다른 일에는 목숨을 아끼더라도 사직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신숙주는 “장부가 아녀자의 손 안에서 죽는다면 ‘집에서 세상일을 모르는 것’이라고 할만합니다.”라고 화답했다.¹⁶⁾ 이어 수양대군은 즉시 “그렇다면 나와 함께 중국으로 가자.”고 했고, 1452년 10월 두 사람은 사은사와 서장관으로 중국 사행을 함께 하면서 운명의 끈을 이어갔다. 신숙주는 1452년 9월 14일 집현전 직제학으로 사은사의 서장관에 임명된 후,¹⁷⁾ 사행 직전인 10월에는 사헌부 執義로 승진하여 사행에 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미 1443년 서장관의 신분으로 일본 사행을 다녀왔던 만큼 외교나 의전에도 매우 능했을 것이고, 4개월 이상을 동고동락하는 과정을 통해 세조의 깊은 신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나라 사행은

16) 『단종실록』, 단종 즉위년(1452년) 8월 10일.

鄭守忠往世祖邸，世祖與之立語，適集賢殿直提學申叔舟從門前過去，世祖呼曰：“申修撰！”叔舟即下馬而謁，世祖笑曰：“何過門不入？”引入與飲，戲云：“故舊何不來見？欲言之久矣，人雖不死，死於社稷。”叔舟對曰：“丈夫，寧臥死兒女子手中？其可曰：‘在家不知。’”世祖即曰：“然則往中國矣。”

17) 『단종실록』, 단종 즉위년(1452년) 9월 14일.

以集賢殿直提學申叔舟爲謝恩使書狀官.

수양대군이 반대 세력이 정치적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하는 성격이 큰 사행이었던 만큼, 세조가 향후의 정치적 동반자로 신숙주를 검증하는 과정이 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1453년 2월 26일 수양대군과 신숙주는 사은사의 임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왔다. 수양대군이 명나라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복명을 하였고, 단종은 수양대군 일행을 위해 외정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 행사에는 양녕대군, 효령대군을 비롯한 왕실의 주요 인물 대부분이 참석하였고, 서장관 신숙주 이하의 일행은 종실인 永川尹 李定的 집에서 음식을 대접받았다. 이때의 수양대군에 대해 실록은 “기율이 엄격하고, 동작이 예절에 맞으며 품모가 영특하여, 진실로 장군이다.”는 식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¹⁸⁾

또한 수양대군은 종친들과 합사하여 단종이 왕비를 맞아야 한다고 거듭 청하였다. 『단종실록』에는 1453년 5월을 전후하여 수양대군이 단종의 혼례를 거듭 청한 기록이 나타난다.¹⁹⁾ 이외에 “왕이 거상 중에 있을 때, 세조가 영의정으로 있었는데, 궁중이 공허하고 후사를 잇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居喪中이지만 權道를 따라 조기에 왕비를 맞아들여야 한다 하여, 의논하여 정했다.”는 『연려실기술』의 기록에서도 보이듯,²⁰⁾ 수양대군은 단종이 문종의 상종임에도 불구하고 권도를 시행하여 왕비를 맞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 청하였다. 그리고 단종이 宋瑛壽의 딸을 왕비(단종의 왕비 定順王后)로 맞이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²¹⁾ 이러한 일

18) 『단종실록』, 1453년(단종 1) 2월 26일.

至遼東往都指揮使司，漢人聚觀如堵，相語曰：“一動，一靜，皆中禮，貌美而英，真將軍也。”

19) 『단종실록』, 단종 1년(1453년) 5월 17일, 5월 20일, 5월 27일 기사 참조.

20) 『연려실기술』 권4, 단종조 고사본말, 단종 왕비의 책봉.

21) 단종과 송현수의 딸과의 혼인은 계유정난 후인 1454년(단종 2) 1월에 행해졌다. 당시 단종(1441~1457)의 나이 14세, 정순왕후 송씨(1440~1521)의 나이는 15세였다.

련의 조치는 수양대군의 정치적 야심을 견제하는 세력에게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갔고, 결국 수양대군의 거사가 성공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명나라 사행 이후 김종서, 황보인의 견제를 피하면서 수양대군은 휘하에 그를 따르는 인물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권람의 추천으로 들어온 한명회가 중심 역할을 했으며, 양정, 홍달손, 홍윤성 등 무사들이 심복으로 자리를 잡았다. 한명회는 김종서와 황보인의 집에 염탐꾼을 들여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1453년 10월 10일을 거사일로 잡았다. 거사 당일 수양대군은 직접 김종서의 집을 방문하였다. 자신의 심복 군사 일부만을 대동하였기 때문에, 김종서는 크게 경계하지 않고 있다가 수양의 지시를 받은 심복들에 의해 아들과 함께 철퇴를 맞았다. 김종서는 철퇴를 맞고도 의식을 회복했으나, 다음날 동향을 살피다가 체포된 후 처형되었다.²²⁾ 수양대군의 가장 큰 경쟁자인 안평대군은 강화로 유배한 후에 賜死하였다. 신숙주는 안평대군과도 깊은 교분을 유지한 사이였는데, 이것은 안평대군의 별장인 匪懈堂에 모여 자주 시를 짓고 이를 작품으로 남긴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때 완성된 「匪懈堂四十八詠」은 안평대군이 먼저 7언율시를 짓고 최항, 신숙주, 성삼문, 서거정 등이 5언·7언율시나, 5언·7언절구를 지은 것을 모은 것이다.²³⁾ 신숙주는 학자풍의 안평대군을 잘 따랐지만,²⁴⁾ 1452

22) 김종서는 거사 당일 수양대군의 심복이 휘두른 철퇴를 맞았으나, 바로 죽지 않았다. 사위의 처가에 숨었다가 다음날 女服을 입고 동태를 살피다가 결국 체포되어 처형을 당했다.

23) 이종목, 「인왕산 무계정사와 인평대군의 꿈」, 『조선의 문화공간 1』, 휴머니스트, 2006.

24) 신숙주는 계유정난 이전까지 안평대군과도 깊은 교분을 맺고 있었다. 안평대군은 특히 다수의 서화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신숙주는 안평대군이 소유한 222축의 書畫를 보고 이에 대한 「畫記」를 쓰기도 했다. 『保閑齋集』, 권10, 五言古詩, 「題匪懈堂詩」 및 「題匪懈堂書屏」 참조.

년 사은사로 수양대군과 동행하면서 맺은 인연은 신숙주를 수양대군 편에 서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계유정난 이후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모든 軍國의 重事를 결정하게 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 겸 병마도통사와 병조판서, 이조판서의 임명 등을 독점하며 정권과 병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계유정난에서 수양대군의 핵심 참모로 활약한 한명회에 비하면 신숙주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정난이 일어났을 때 왕릉을 살피기 위해 지방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이다.²⁵⁾ 계유정난 직후 수양대군 자신을 비롯하여, 훗날 수양대군의 핵심 측근이 되는 정인지, 한명회, 홍달손, 권람 등이 일등공신에 올랐지만, 신숙주는 양정, 유수, 홍윤성 등과 함께 2등공신에 올랐다.²⁶⁾ 靖難功臣 책봉에서 성삼문이 삼등공신에 책봉된 것도 주목되는데, 이것은 수양대군이 성삼문에게도 정치적 뜻을 같이하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당일의 거사에는 직접 행동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신숙주가 정난공신 2등에 책봉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예전부터 신숙주는 수양대군의 계획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숙주는 계유정난 다음날인 10월 11일 우승지를 거쳐, 11월 8일에는 좌승지가 되었고, 1454년 2월 8일에는 오늘날 청와대 비서실장실에 해당하는 도승지가 되었다. 당시의 실권자가 수양대군인 것을 고려하면 신숙주는 수양대군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숙주가 도승지가 된 직후인 2월 13일에는 경복궁 후원의 복단에서 三功臣²⁷⁾ 관계자들과 정난공신들이 참여하는 會盟宴이 열렸는데, 이 모임은 수

25) 남지대, 앞의 논문, 167쪽.

26) 계유정난 때의 공신 책봉 과정과 공신의 명단에 대해서는 정두희의 아래 저서에 도표로 잘 정리되어 있다.

정두희, 『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 연구』, 일조각, 1983, 195~209쪽 참조.

27) 『단종실록』에는 1453년 2월 13일 “三功臣의 嫡長親子和 정난공신 및 그 적장친자 등 모두 1백 47인이 경복궁의 성 북쪽 壇에서 함께 맹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三功臣은 조선 전기의 세 차례의 공신으로, 1392년의 개국공신, 1398년의 1차 왕

양대군이 주도하여 측근에 대한 정치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조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3월 5일의, “의정부와 육조에서 세조의 저택에서 위로연을 베풀기를 청하니, 예조로 하여금 잔치를 베풀게 하고, 도승지 신숙주와 좌승지 박팽년을 보내어 술과 풍악을 하사하였다.”²⁸⁾는 실록의 기록에서도 수양대군의 인맥 관리가 잘 드러나 있다. 功臣會盟宴이나 수양대군이 주최하는 위로연 등을 통해서 수양대군과 신숙주의 정치적 유대는 더욱 굳건해졌을 것이다. 신숙주가 도승지로 있을 때, 그의 아우 申末舟가 과거에 급제하자 왕이 직접 술 30병을 내려준 사실도 이례적으로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²⁹⁾ 이 사례 역시 수양대군에 대한 신숙주의 두터운 신뢰로 볼 수가 있다. 이 무렵에 한명회와 사돈 관계를 맺은 것³⁰⁾ 또한 신숙주가 수양대군의 최측근 참모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III. 세조 즉위 후 최고의 참모로 활약하다

1453년 10월 10일의 계유정난과 이어진 1455년 윤6월 세조의 즉위는 신숙주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학자로서의 인생에서 세조의 참모로서 정치인의 역할에 더 비중을 갖게 된 것이다. 계유정난 이후 단종은

자의 난 이후의 定社功臣, 1400년 2차 왕자의 난 이후의 佐命功臣을 말한다.

28) 『단종실록』, 단종 1년(1453년) 3월 5일.

議政府, 六曹請慰宴于世祖邸. 令禮曹設宴, 遣都承旨申叔舟, 左承旨朴彭年賜酒樂.

29) 『단종실록』, 단종 2년(1454년) 11월 12일.

都承旨申叔舟, 以弟末舟登第, 設賀宴于其第, 賜酒三十瓶.

30) 1454년 신숙주의 맏아들 申澍와 한명회의 딸이 혼인하여, 신숙주의 장손인 申從洽을 낳았다. 신숙주의 가계에 대해서는 박덕규, 『신숙주 - 사람의 길, 큰 사람의 길』, 둥지, 1995 참조.

虛位를 지키고 있을 뿐 실권은 완전히 수양에게 넘어간 상황에서도, 신숙주는 도승지 등으로 단종을 보필하면서 1454년 3월에는 정인지 등과 함께 『칠정산내외편』을 奉撰하고, 1455년 2월에는 『洪武正韻』을 훈역하고 그 서문을 짓는 등 관료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갔다. 신숙주는 「홍무정운 역훈서」에서, “우리나라가 대대로 중국을 섬겼으나,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여 반드시 통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홍무정운』을 번역할 것을 명하였고, 성삼문, 수양대군과 함께 참여하여 가로 세로 씨줄과 날줄이 비로소 바르게 되어 결합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³¹⁾

1455년 윤6월 수양대군이 마침내 조카 단종을 압박하여, 상왕으로 밀어내고 왕위에 올랐고, 신숙주는 세조의 최고 참모로 자리를 잡아 갔다. 『세조실록』에는 “금성대군이 무사들 및 헤빈 양씨와 그녀의 소생인 한남군, 영풍군 등과 결탁하여 권세를 부리고 불법을 자행하여 나라를 위기에 빠지고 하고 있어, 이를 수습할 수 있는 적임자로 당시 영의정으로 있는 수양대군에게 단종이 군국의 대사를 물려준다.”고 기록하고 있다.³²⁾ 단종은 환관 田昫로 하여금 좌의정 韓確 등에게 傳旨를 내려, “내가 나이가 어리고 中外의 일을 알지 못하는 탓으로 간사한 무리들이 은밀히 발동하고 난을 도모하는 싹이 종식하지 않으니, 이제 大任을 영의정에게 전하여 주려고 한다.”고 하였고, 韓確은 물론이고, 수양대군 역시 눈물을 흘리며 완강히 사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³³⁾ 이때 동부승지로 있던 성삼문은 직책상 옥새를 수양대군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고,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전달한 날 크게 좌절했다. 박팽년과 성삼문은 경희루 연못에 빠져 죽고

31) 『保閑齋集』, 「洪武正韻譯訓書」.

32) 『세조실록』, 세조 1년(1455년) 윤6월 11일.

令宦官田昫傳于確等曰: “予幼沖不知中外之事, 致姦黨竊發, 亂萌未息, 今將以大任傳付領議政.”

33) 『세조실록』, 세조 1년(1455년) 윤6월 11일.

確等合辭固諍, 世祖亦涕泣牢辭

자 했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수양대군에 대한 복수를 결심했다. 1456년에 전개되는 단종 복위운동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당시 경희루에서 수양대군이 단종을 사실상 압박하여 옥새를 받던 과정은 『세조실록』과 『연려실기술』 등에 잘 나타나 있다.³⁴⁾ 수양대군은 눈물까지 흘리며 형식상 계속 사양하는 모습을 고집했으나, 결국에는 단종의 양위를 받아 곤룡포와 익선관을 갖추고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올렸다. 이제 수양대군이 아닌 조선의 일곱 번째 왕 세조가 된 것이다.³⁵⁾ 단종은 禪位 敎書에서 “小子가 邦家의 不造 하지 못할 때를 당하여 어린 나이에 선왕의 대업을 이어받고 궁중 안에 깊이 거처하고 있으므로 내외의 모든 사무를 알 도리가 없으니, 흥한 무리들이 소란을 일으켜 국가의 많은 사고를 유발하였다. 숙부 수양대군이 충의를 분발하여 나의 몸을 도우시면서 수많은 흉도를 능히 숙청하고 어려움을 크게 견지시었다. 그러나 아직도 흥한 무리들이 다 殄滅되지 않아서 변고가 이내 계속되고 있으니, 이 큰 어려움을 당하여 내 과덕한 몸으로는 이를 능히 진정할 바가 아닌지라, 종묘와 사직을 수호할 책임이 실상 우리 숙부에게 있는 것이다.”³⁶⁾고 하여 선위의 명분이 어지러운 정국 수습에 있고 이러한 임무를 맡을 수 있는 인물은 숙부인 수양대군임을 분명히 하였다.³⁷⁾

34) 『연려실기술』 권4, 단종조 고사본말, 육신의 상왕 복위.

35) 『세조실록』, 세조 1년(1455년) 윤6월 11일.

即位敎書, 有司備儀衛, 設軒架於勤政殿庭. 世祖具翼善冠, 袞龍袍, 率百官詣殿庭受禪.

36) 『세조실록』, 세조 1년(1455년) 윤6월 11일.

予小子遭家不造, 幼冲嗣服, 深居宮掖之中, 內外庶務, 蒙未有知, 致兇徒煽亂, 國家多故. 叔父首陽大君【世祖諱】奮發忠義, 左右我躬, 克清群兇, 弘濟艱難. 然兇徒未殄, 變故相仍, 屬茲大難, 非予寡躬所能鎮定, 宗廟社稷之責, 實在我叔父.

37) 단종의 선위 명분은 현대 정치사에서 1961년 5. 16, 1979년 12. 12 군사쿠데타의 과정과도 흡사한 점이 발견된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직후 신숙주는 다시 도승지에 올랐는데,³⁸⁾ 이것은 신숙주에 대한 세조의 신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해 9월에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데 공을 세운 佐翼功臣의 책록에서 일등공신에 올랐으며,³⁹⁾ 9월 20일에는 세조의 즉위를 알리는 주문사로 임명되어,⁴⁰⁾ 10월에 명나라 사행길에 올랐다. 신숙주는 이듬해인 1456년(세조 2) 2월 명나라 황제의 윤허를 받아 돌아왔고, 세조는 奏聞使 신숙주를 직접 사정전에서 인견하였다. 세조는 용상에서 내려와 신숙주에게 술을 내려주며, “옛날에 萬里를 동행하였고, 또다시 동맹하여 이제 능히 大事를 성취하였으니 기쁨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고, 한껏 잔치를 즐기고 신숙주에게 內廐馬 1필을 하사하였다.⁴¹⁾ 왕이 되기 전 신숙주와 명나라에 간 인연이 다시금 이어진 것을 상기시키면서 동맹이라 한 것은 신숙주에 대한 최고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어린 조카를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세조의 입장에서 명나라로부터 왕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큰 관심이었을 것이고, 이를 신숙주가 해결한 것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은 것이다.

1456년 6월 세조는 물론이고 신숙주에게도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성삼문 등이 세조와 세자를 살해하고 단종을 복위하

38) 현대의 정치 사회에서도 새로운 정부 출범 초기에 갖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위상은 매우 크다.

39) 당시 좌익공신 1등에 오른 인물은, 종친인 계양군과 익현군 이외에 한확, 윤사로, 권람, 신숙주, 한명회 등이었다. 정인지와 최항 등이 2등공신에 책록된 것을 보면 신숙주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좌익공신의 분석에 대해서는 정두희, 앞의 책, 209~222쪽 참조.

40) 『세조실록』, 세조 2년(1456년) 9월 8일.

以申叔舟爲奏聞使, 權擊謝恩使. 당시 신숙주의 장자 申澍가 배행했다(연보 39세 참조).

41) 『세조실록』, 세조 2년(1456년) 2월 21일.

叔舟來復命, 上引見于思政殿, 世子及當直諸將, 承旨等入侍 上下床, 賜叔舟酒曰: “昔日同行萬里, 又再同盟, 今克成大事, 喜可量乎?” 極歡而罷, 賜叔舟內廐馬一匹

러던 역모가 드러난 것이다. 성삼문이 신숙주의 절친한 친구인 것을 비롯하여 단종복위 운동의 주동자들 대부분은 세조 시절 신숙주와 함께 집현전에서 활동한 동지들이었다. 성삼문은 처음 단종복위를 계획하면서 신숙주를 처형 대상으로 삼았으나, 거사 당일 윤영손이 계획이 정지된 것을 알지 못하고 신숙주가 한쪽 마루에 나가서 머리 감는 것을 틈타 칼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가자 이를 만류하였다.⁴²⁾ 거사가 실패로 돌아간 후 세조는 사정전에서 직접 국문에 나섰다. 추국 과정에서 성삼문은 세조를 보고 '나으리'라고 불렀으며, 세조로부터 받은 녹을 먹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등 세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⁴³⁾ 성삼문은 세조 옆에 있었던 신숙주에게 과거 세종과의 말씀을 잊었냐고 꾸짖자, 신숙주가 세조의 뒤로 피하는 상황까지 나오는 등⁴⁴⁾ 신숙주는 동료들을 배신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숙주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분명히 했다. 자신과 세조 정권을 위협하는 단종 추종 세력의 처리에 적극 나섰다. 단종복위를 모의한 자들에게 죄를 두는 판결에 참여했고, 상왕인 단종의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⁴⁵⁾ 이후 금성대군이 주도하여 다시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자, 정인지 등과 더불어 금성대군과 단종을 賜死할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⁴⁶⁾ 또한 신숙주는 예종 대에 편찬되는 『武定寶鑑』⁴⁷⁾을 수교하는 과정에서도, “노산군이 선위하여서 세조가 즉위하였으니, 즉위한 해를 紀年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병자년의 난에 성삼문,

42) 『연려실기술』 권4, 단종조 고사본말, 육신의 상왕 복위 모의.

43) 『연려실기술』 권4, 단종조 고사본말, 육신의 상왕 복위 모의.

44) 『연려실기술』 권4, 단종조 고사본말, 육신의 상왕 복위 모의.

45) 『세조실록』, 세조 2년(1456년) 12월 9일.

46) 『세조실록』, 세조 3년(1456년) 9월 10일.

47) 조선 전기의 정치적 주요 사건을 수록한 책으로, 개국 초부터 예종 때까지의 『무정보감』은 현존하지 않고, 성종 때부터 명종 초년까지의 내외·외환을 진압한 전말을 수록한 『속무정보감』이 남아 있다.

박팽년, 성승 등이 모두 역모의 혐의를 품었었는데, 지금 『무정보감』에는 그 일을 기록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기록하도록 하소서.”⁴⁸⁾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세조가 즉위한 해를 1년으로 하고, 성삼문 등의 단종 복위 사건을 역모로 규정하여 세조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신숙주는 세조의 의혹을 받을 정도로,⁴⁹⁾ 단종 복위를 주도한 인물들에 대한 선처를 하였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즉 금성대군이 順興에 안치된 후 역모를 꾸민 안순손 등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모두 그 일이 반역에 관계되었으므로 감히 가볍게 의논하지 못하고 거의 무거운 법전을 따랐는데, 신숙주가 말하기를, “성상의 뜻이 어찌 많이 사람을 죽이겠는가? 마땅히 정상을 살피 죄를 정해야 한다.” 하였다. 이로써 생명을 온전히 한 자가 많았다.”는 기록이 대표적이다.⁵⁰⁾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이 컸던 만큼 세조는 왕위에 오른 후 측근 세력의 결속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의 포용에도 주력하였다. 경회루 등에서 자주 술자리를 베풀고⁵¹⁾ 신하들과 격의 없게 어울리면서 왕에 대한 충성을 유도해 나갔다. 술자리에서 신숙주가 세조에게 큰

48) 『예종실록』, 예종 1년(1469년) 7월 12일.

高靈君 申叔舟 讎校《武定寶鑑》訖，啓曰：“魯山禪而世祖卽位，當以卽位之年爲紀元。且丙子之難，成三問，朴彭年，成勝等，皆以懷嫌謀逆，今寶鑑不錄其事，請錄之。”仍標可改處以啓

49) 남지대, 앞의 논문, 167쪽.

50) 『세조실록』, 세조 3년(1459년) 10월 9일.

皆以事干反逆，未敢輕議，率從重典 左贊成申叔舟曰：“上意豈欲多殺人？宜原情定罪。”以是多所全活.

51) 실록에서 ‘술자리’라는 용어를 검색해 보면 『세조실록』에 총 467건이 나온다. 『태종실록』의 167건, 『세종실록』의 91건, 『연산군일기』의 6건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세조의 집권 기간이 14년임을 감안하면 기록된 공식 술자리만 해도 1년에 33회, 한 달에 3회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실수를 했고 이것을 한명회가 지혜를 발휘해 잘 무마한 재미있는 일화가 전하기도 한다.

일찍이 신숙주와 함께 궁중에서 세조를 모시고 잔치할 때, 술이 취하자 세조가 숙주의 팔을 잡고 많이 마시면서 이르기를, “경도 역시 나의 팔을 잡으려다.”고 하니 숙주가 심히 취해서 소매 속으로 손을 넣어서 세조의 팔을 잡으니 세조가, “아파, 아파” 하였다. 그때, 예종이 곁에 있다가 얼굴빛이 변하였다. 세조가 예종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가하지만, 너는 불가하다.” 하고는 극히 흥겨워하며 헤어졌다. 공이 집에 돌아와서 청지기에게 이르기를, “범옹(泛翁:신숙주)이 평일에 많이 취했더라도 술이 조금 깨면 반드시 일어나 등불을 켜고 글을 열람한 뒤에 취침하나 오늘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하여 중지하게 하라.” 하였다. 청지기가 가서 보니 과연 공의 말과 같았다. 밤중이 되자 세조가 술이 깨자 내시를 시켜 숙주의 집에 가서 살펴보게 하니 숙주가 취침하였더라 하였다. 『謏聞瑣錄』⁵²⁾

위의 기록은 신숙주와 세조가 매우 격의없는 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신숙주에 대한 확실한 충성을 강요하는 세조의 정치적 감시가 여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숙주는 1459년(세조 5) 1월 19일 함길도 도체찰사가 되어 북변으로 떠났으며,⁵³⁾ 이해 4월 우의정 겸 도체찰사로 한양으로 돌아와 경회루에서 세조에게 복명하였는데,⁵⁴⁾ 이때도 어김없이 술자리가 베풀어졌다. 1460년 2월 신숙주는 다시 함길도 도체찰사가 되었으며, 7월에는 여진족의 정벌에 큰 공을 세웠다. 1460년 9월 여진족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신숙주가 陣中에서 박료들과 시를 唱和하는 모습

52) 『연려실기술』 권5, 세조조 고사본말, 세조조 상신, 한명회.

53) 『세조실록』, 세조 5년(1459년) 1월 19일.

54) 『세조실록』, 세조 5년(1459년) 4월 17일.

은 「夜戰賦試圖」라는 그림으로 전해지고 있다. 1461년(세조 7) 3월 신숙주는 북방 여진족 정벌의 경험을 『北征錄』으로 남겼다. 1464년(세조 10) 5월에는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원각사 창건 도제조가 되어 세조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圓覺寺의 창건의 책임을 맡았다.⁵⁵⁾ 세조의 중점 사업이 원각사 창건임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 것이었다. 1466년 1월 다시 영의정에 올랐으나, 4월 영의정을 사직하고 고령군에 봉해졌다.

세조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 승승장구하던 신숙주에게도 정치적 위기가 찾아왔다. 1467년(세조 13) 5월 함길도에서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켰고, 당시 함길도관찰사로 있던 차남 申漉이 피살되었다. 신숙주는 이때 모반죄의 혐의를 받아 네 아들과 함께 투옥되었다가, 다행히 6월에 석방되었다. 이시애 측은 공신이었던 ‘한명회와 신숙주 등이 연루되었다.’⁵⁶⁾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를 들은 세조는 허위임을 어느 정도 인지했지만,⁵⁷⁾ 연루 의혹을 받는 사실만으로 한명회와 신숙주에 대해 하옥을 명하였다. “근자에 신숙주와 한명회 등이 백관의 장으로 있으면서 못사람의 입에 구실감이 되었으니, 비록 반역한 것은 아닐지라도, 伴從을 申飭하지 못하고 人君을 배반하였다는 惡名을 받아서, 원근의 의혹을 일으킨 것은 진실로 모두 스스로 취한 것이다. 나도 또한 어리석고 나약하여 위엄이 없는데, 백성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방편을 생각하지 않음은 옳지 못하니, 우선 이들을 가두어 두는 것이 옳겠다.”고 한 것이다.⁵⁸⁾ 세조는 하옥 기간 중 사람을 보내 죄수의 칼과 족쇄를 확인하였는데 신숙주와 그의 아들 등 8인의

55) 『세조실록』, 세조 10년(1464년) 5월 3일.

56) 『세조실록』, 세조 13년(1467년) 5월 16일.

57) 『세조실록』, 세조 13년(1467년) 5월 17일.

58) 『세조실록』, 세조 13년(1467년) 5월 19일.

今者申叔舟, 韓明澮等, 居百官之長, 爲衆口所藉, 雖非反逆, 然不飭伴從, 受君側之惡之名, 以起遠近之惑, 實皆自取. 予亦不可暗懦無威, 不從民言, 不思方便, 姑可囚之. “卽命兼司僕, 內禁衛, 宣傳官等率軍士, 拿致叔舟及子漉, 漉, 浚, 溥等, 囚義禁府.”

것이 허술한 것을 발견하고는,⁵⁹⁾ “인군을 업신여기고 신하에게 아부하였으니,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관련자들을 다시 처벌하였다.⁶⁰⁾ 이후 한명회와 신숙주는 세조에 의해 석방되었고 더 이상의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세조는 “한명회·신숙주는 罪過가 없지 않으니, 무례하게 마음대로 한 것이 그 죄이다.”⁶¹⁾라고 하면서, 한명회와 신숙주에 대한 정치적 견제를 노골화하였다.

이시애의 난이 진압된 후 한명회와 신숙주는 공신에서 제외되었으며, 南怡(1441~1468)와 龜城君(1441~1479)⁶²⁾과 같은 새로운 세력들이 공신으로 책봉되었다. 이는 新功臣 세력을 등장시켜 구공신세력을 견제하고자 한 세조의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조도 권력 기반이 취약한 예종을 후원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원로대신들의 능력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遺命으로 이들을 院相으로 임명시켜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신숙주와 한명회 등은 다시 정치적 지위를 회복할 수가 있었다. 신숙주는 1468년 9월 세조가 승하한 후에는 국장도감의 제조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조와의 마지막 인연을 다했다.

59) 『세조실록』, 세조 13년(1467년) 5월 21일.

60) 『세조실록』, 세조 13년(1467년) 5월 22일.

61) 『세조실록』, 세조 13년(1467년) 6월 5일.

令都承旨尹弼商傳曰：“韓明澮，申叔舟，不無罪過，無禮專擅，其是罪也

62) 이름은 李浚. 세종의 4남인 臨瀛大君 璆의 아들. 1466년(세조 12) 무과에 급제하고, 이듬해 사도병마도총사가 되어 李施愛의 난을 평정하고, 이 해 적개공신 1등이 되고, 병조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특진되었다. 1468년 남이의 옥사를 다스리는데 공을 세워 익대공신 2등에 훈봉되었다.

IV. 예종, 성종대에 원상으로 활약하다

1468년 예종이 즉위한 후에는 원상에 올랐고,⁶³⁾ 예종 초반 신공신 세력과 구공신 세력의 힘겨루기 성격이 강했던 남이의 역모 사건 이후 신숙주 이를 평정한 공으로 翊戴功臣 1등에 올랐다. 이시애의 난에 연루된 혐의로 잠시 위축되었던 그의 정치적 위상은 다시 높아졌고, 예종이 1년 2개월 만에 사망한 후 성종이 1469년 11월 13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성종을 보좌하는 원로대신으로 자리를 잡아 갔다. 1471년(성종 2) 성종의 즉위에 공을 세운 공신 책봉에서, 佐理功臣 1등에 봉해지고, 이해 10월 다시 영의정에 올랐다. 12월에는 『세조실록』과 『海東諸國記』를 찬진하였다. 신숙주는 『해동제국기』의 서문에서 “신은 듣건대 ‘夷狄을 대하는 방법은 外征에 있지 않고 내치에 있으며, 邊禦에 있지 않고 조정에 있으며, 전쟁에 있지 않고 기강을 진작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이제 징험이 됩니다.”라고 하여 무엇보다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고 교린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구에 발생할지도 모를 전란을 막기 위해서는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⁶⁴⁾ 임종하기 직전에도 성종에게 ‘일본과의 和好를 잃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남겨, 100년 전에 이미 일본의 호전성을 간파한 점은 그의 외교적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다.⁶⁵⁾

63) 『예종실록』, 예종 즉위년(1468년) 9월 21일.

命以高靈君 申叔舟, 上黨君 韓明澮, 綾城君 具致寬, 左議政朴元亨, 寧城君 崔恒, 仁山君 洪允成, 昌寧君 曹錫文, 右議政金礪, 左贊成金國光等爲院相, 更日詣承政院, 議決庶務.

64) 『保閑齋集』, 「海東諸國記序」.

65) 臣嘗聞待夷狄之道 不在乎外攘 而在乎內修 不在乎邊禦 而在乎朝政.

손승철, 「해동제국기의 역사지리학적 연구」, 『강원인문논총』 1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1472년(성종 3) 5월에는 『예종실록』을 撰進하였다. 1474년 4월 성종의 첫 왕비인 공혜왕후 한씨가 승하하자 국장도감 도제조가 되었으며, 이해 12월에는 세조 시대에 편찬 작업을 시작한 『동국통감』의 완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1475년 3월에는 『경국대전』의 찬진에 참여하여, 세조의 유업을 완성하는데 일조를 했지만 3개월 후 생을 마감했다. 1475년 6월 21일 59세의 나이로 졸하였으며, 9월에 양주 송산리에 묻히고, 11월 文忠의 시호를 받았다. 『성종실록』의 졸기에는 파란만장했던 그의 정치적 역정이 잘 기록되어 있다. 세종 때 통신사의 서장관으로 일본에 갈 때 세종이 편전에서 인견하고 묻기를, ‘들으니 네가 병으로 쇠약하다고 하는데, 먼 길을 갈 수 있겠느냐?’고 하자, ‘신의 병이 이미 나았는데,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라고 한 대목에서는 관료로서의 책임 의식이 잘 나타난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그 나라 사람들이 붓과 종이를 가지고 와서 시를 써 달라고 구하는 자가 모여들었으나 신속주는 붓을 잡고 즉석에서 써 주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고 하여 그의 문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볼 수가 있다. 세조 때의 행적에 대해서는 여진족 정벌에 관한 평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北虜가 여러 번 변경을 침범하므로 세조가 매양 征討하고자 하므로 조정의 의논이 紛紜하였으나, 신속주가 홀로 계책을 세워 치기를 청하였다. 경진년(1460년)에 신속주를 강원도 함길도 도체찰사로 삼아 가서 토벌하도록 명하였는데, 승첩이 들리자 表裏, 토지, 노비를 하사하였다.”는 기록에서는 국방에서도 자질을 보여준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다.⁶⁶⁾ 「병정발」에서는 세조가 군령을 정비하고 이를 『병정』으로 출간한 사실을 신속주가 발문으로 기록하고 있음은 볼 수 있는데,⁶⁷⁾ 이는 신

66) 한성주, 「조선 세조대 ‘女眞 和解事’에 대한 연구 : 申叔舟의 倂견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8, 동북아역사재단, 2012.

67) 『保閑齋集』, 권16, 「兵政跋」.

兵之於政 爲國所先務 主上殿下 撫定大難 應運關理 特先兵事 而尙以君令未精 莫適

숙주가 세조의 군사적 참모로서도 든든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종, 성종 대에도 신숙주는 세조의 遺命을 받들어 院相으로 참여하였으며, 1475년 5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⁶⁸⁾

신숙주의 卒記에는 세종대에 관직 생활을 시작한 후, 세조와 인연을 맺고 본격적인 참모로 활동한 상황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인물 즐기로서는 그 상세함이 매우 파격적인 점도 조선초기 그의 정치적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활동을 전반부에 기록한 다음 후반부에는 주로 신숙주의 개인적인 능력, 특히 뛰어난 외교 역량, 언어력과 문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다.

V. 신숙주에 대한 평가들

신숙주는 흔히 성삼문과 자주 비교되곤 한다. 집현전 학자로서 세종의 총애를 받았던 성삼문과 신숙주는 특히 문장과 어학에 특히 뛰어나 훈민정음 반포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두 사람은 중국의 음운학자 황찬을 만나기 위해 열세 번이나 머나먼 요동 길을 함께 오가면서 절친한 우정을 쌓은 사이였다. 그러나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성삼문은 단종 복위운동을 주도한 사육신의 대표적 인물로 수양대군의 불법적인 왕위 찬탈에 맞서 저항하다가 처형으로 삶을 마감한 반면, 신숙주는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을 도와 세조 이후 승승장구하면서 성종대까지 국가의 원로가 되어 학문과 문화 창조의 위업을 쌓는 완전히

所從 名爲定式 書成 賜名兵政 命臣敘其尾

68) 『성종실록』, 성종 6년(1475년) 6월 21일.

다른 운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 특히 거사 당일 성삼문은 '신숙주는 나의 평생의 친구이지만 죽이지 않을 수 없다'고 결연한 의지를 폈지만, 거사가 연기된 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윤영손이 신숙주를 죽이려고 할 때 이를 막아주는 마지막 우정을 보여주기도 하였다.⁶⁹⁾

신숙주가 세조의 의혹을 살 정도로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해 선처를 한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성삼문과 신숙주는 사후, 특히 시대가 내려갈수록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죽음으로 의리를 지킨 성삼문이 충신의 대명사로 조선후기에 와서 충절의 대명사로 추앙을 받은 반면, 신숙주는 뛰어난 학문적 자질에도 불구하고 수양대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변절한 지식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원래 녹두의 싹을 내어 먹는 나물로서, 豆芽菜란 이름으로 불렸던 나물이 '숙주나물'로 바뀐 것에도 신숙주의 행적을 응징하고자 하는 백성들의 증오가 담겨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⁷⁰⁾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신숙주가 사림파의 영수인 김종직과도 절친한 친분을 유지한 점이다. 김종직은 신숙주의 문집인 『보한재집』의 서문에서, “공은 국량이 넓고 크며 才識이 매우 해박하여 벼슬을 시작한 이후로 재상이 되기에 이르기까지 평소 가슴 속에 온축된 것들이 발산되어 經世濟民의 용도가 되었다. 공은 모든 사물이 앞에 이르면 기미를 맞아 응접하여 좌우로 酬酢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 온축된 것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 끝이 없어 그 한계를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음을 탄복하였다.”⁷¹⁾고 극찬하는

69) 『연려실기술』 권4, 단종조 고사본말, 육신의 상왕 복위 모의.

70) 세조대에서 성종대까지 조선 전기 정치, 문화 정비의 최고 주역이었지만 신숙주에게는 이처럼 가혹한 불명예가 더해진 까닭은 충절과 의리를 지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림파의 정치의식이 조선후기에 계승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71) 『估畢齋集』 권1, 「申文忠公文集序」.

公城府弘曠. 才識博洽. 通籍以來. 至居廟堂. 以其平日所蘊畜者. 發而爲經濟之用. 凡事物之來也. 迎幾應接. 左右酬酢. 人皆服其愈出而愈不窮. 而不能測識其涯際.

가 하면, “공이 『병장설』을 주석할 적에 내가 외람되이 屬官으로 있었는데, 하루는 내가 門屏에서 공의 명령을 받들고 있을 때, 공은 막 손들과 술을 마시면서 한마디 말로 온 좌중에 나의 장점을 칭찬해 주었으니, 나를 개발 시키고 성취시켜 준 그 은혜를 어찌 감히 잊을 수 있겠는가.”⁷²⁾라 하여 신숙주가 자신을 성취시켜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보였다. 김종직이 신숙주를 인정했다는 것은 16세기 사림파들에게서도 신숙주의 문장력과 정치적 실무 능력이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16세기 이후 사림파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식을 받던 신숙주가 변절의 지식인으로 인식된 결정적인 계기는 숙종대에 단종과 사육신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성삼문과 절친한 벗이었던 신숙주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게 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⁷³⁾

성현의 『용재총화』에도 당대 최고의 문장가를 소개하면서, “신숙주만이 문장과 도덕으로 당대에 존경을 받았다. 그 뒤를 이은 사람은 達城 徐居正, 永山 金守溫, 晉山 姜希孟, 陽城 李承召, 福昌 金壽寧뿐이다.”⁷⁴⁾ 하여 신숙주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음이 보인다. 성현은 신숙주와 거의 동시대를 살아간 인물이었던 만큼 『용재총화』의 평가는 매우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신숙주는 天資가 고매하고 관후하면서 활달하였으며, 經史에 두루 미치고 의논에 항상 大體를 지녀서 까다롭거나 자질구레하지 아니하였으며, 大義를 결단함에 있어 江河를 터놓은 것과 같이 막힘이 없어서 조야가 의지하고 중히

72) 『佔畢齋集』 권1, 「申文忠公文集序」.

宗直. 窮鄉晚進. 始自槐院. 辱公之知. 公之註兵將說也. 叨濫屬官. 一日. 承稟於門屏. 公方與客飲. 一言延譽于四座. 所以開發成就之恩. 何敢忘諸.

73) 이것은 ‘숙주나물’이라는 말도 조선후기에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와 일치점을 갖는다.

74) 성현 저, 김남이·전지원 외 옮김, 『용재총화』, 휴머니스트, 2015, 32쪽.

여겼다. 오랫동안 예조를 관장하여 사대교린을 자신의 소임을 삼아 詞命이 그의 손에서 많이 나왔다. 正音を 알고 漢語에 능통하여 『홍무정운』을 번역하였으며, 漢音を 배우는 자들이 많이 이에 힘입었다. 친히 일본에 건너가서 무릇 그 산천, 관제, 풍속, 族系에 대하여 두루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서 『해동제국기』를 지어 올렸다. 세종이 『오례의』를 찬술하였으나 아직 반포하지 못하였는데, 임금이 신숙주에게 명하여 이를 간행하게 하였다. 문장을 만드는 것은 모두 가슴속에서 우리나라왔고, 刻削을 일삼지 않았으며, 스스로 호를 보한재라 하고 그 문집이 있어 세상에 인행되었다. 친척을 은혜로써 위무하였고, 寮友를 성심으로 대접하였으며, 비록 僕隸와 같이 천한 자라도 모두 은혜와 의리로써 대우하였다. 잘하게 되자 듣는 자가 애석해 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있었다. 유명으로, 검소하게 장례를 치르고 浮屠의 법을 쓰지 말게 하였으며 서적을 함께 묻도록 하였다. 시호를 문충이라 하였는데, 도덕을 지키고 문장에 박학한 것을 '문'이라 하고, 자신이 위태로우면서도 임금을 받드는 것을 '충'이라 한다.⁷⁵⁾

조선 전기 신숙주가 수행한 정치적 활동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했다. 따라서 성리학의 義理論이 강화되면서 그에게 씌운 변절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은 신숙주의 진면목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신숙주에 대한 평가는 『보한재집』의 서문에서 서거

75) 『성종실록』, 성종 6년(1475년) 6월 21일.

叔舟天資高邁, 寬厚豁達, 博洽經史, 議論常持大體, 不爲苛細, 處大事斷大義, 如江河之決, 朝野倚以爲重. 久掌禮曹, 以事大交隣爲己任, 詞命多出其手. 解正音通漢語, 翻譯《洪武正韻》, 學漢音者多賴之. 親涉日本, 凡其山川, 官制, 風俗, 族系靡不周知, 作《海東諸國紀》以進. 世宗撰《五禮儀》, 未頒, 上命叔舟, 刊定行之. 爲文章, 皆出胸中, 不事刻削, 自號保閑齋, 有集行于世. 撫親戚以恩, 待寮友以誠, 雖僕隸之賤, 待之皆有恩義. 及卒, 聞者莫不惜之, 至有掩涕者. 遺命薄葬, 不作浮屠法, 殉以書籍. 諡文忠, 道德博文章, 危身奉上忠.

정이 지적인 “선생은 이 같은 문장을 펴서, 정무를 처리하고 다섯 왕을 섬기면서 홀로 機要를 담당하니, 네 차례나 麒麟閣에 초상화를 모셨고, 두 차례나 영상의 지위를 맡으면서 오랫동안 예조를 아울러 관장하였으며, 典故에 밝아 항상 경연에서 계책을 세우고 왕을 보좌하였다. 출입 장상 20여 년간에 선생이 세우신 특별한 공훈과 위대한 업적은 빛을 능히 가릴만한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만하다.”⁷⁶⁾는 표현에서는 신숙주의 업적을 압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⁷⁷⁾ 서거정의 서문에서의 평가는 성현이 『용재총화』에서 신숙주를 평가한 내용과도 거의 일치한다.

신숙주의 평가와 관련하여 실록 줄기의 사신 평가는 그의 장단점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줄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의 가계에 대한 기록과 함께 사신의 평을 담고 있는데, 신숙주의 단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

신숙주는 贈領議政府事 윤경연의 딸에게 장가들어 여덟 아들을 낳았으니, 장남은 申澍인데 먼저 죽었고, 다음은 申澍인데 함길도 도관찰사로서 이시애의 난을 만나 죽었으며, 다음은 申濼인데 황해도 관찰사이고, 다음은 申澍인데 이조참판이며, 다음은 申浚인데 병조 참의로서, 신정과 신준은 모두 좌리공신에 참여하였다. 다음은 申溥이고, 다음은 申澗이며, 다음은 申泌이다. 史臣이 논평하기를, “신숙주는 일찍이 중한 명망이 있어, 세종이 문종에게 말하기를, ‘신

76) 『保閑齋集』, 序 (徐居正 撰).

先生以如是之文 發而措諸事業 際會五朝 獨典機要 四圖麟閣 而再長嘉廓 久兼春官 而明於典故 常侍經帷 謨猷獻替 出入將相 餘二十年 先生之殊勳衛烈 亦可以掩前先生而獨步矣.

77) 5대조에 걸쳐 20여 년간 정승 등의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문물과 제도를 정비한 신숙주의 모습은, 조선 중기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6번이나 영의정을 맡으면서 국가의 정책을 주도해갔던 이원익과도 매우 닮아 있다. 신숙주, 이원익은 성과를 창출하는 전형적인 참모로 파악할 수가 있다.

숙주는 國事를 부탁할 만한 자이다.'라고 하였고, 세조를 조우하여 계책이 행해지고 말은 받아들여져, 세조가 일찍이 말하기를, '경은 나의 魏徵이다.'라고 하였고,⁷⁸⁾ 매양 큰 일을 만나면 반드시 물어보았다. 임금으로 즉위함에 미쳐서는 보양하고 贊導하는 공이 많았다. 그러나 세조를 섬김에는 承順만을 힘썼고, 예종조에는 형정이 공정함을 잃었는데 匡救한 바가 없었으니, 이것이 그의 단점이다. 恩眷이 바야흐로 성하였으나 자신이 縲紲(검은 포승으로 죄인을 묶음)의 욕을 만났고, 죽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신정도 또한 베임을 당했으니, 아슬프구나.⁷⁹⁾

“세조를 섬김에는 承順만을 힘썼고, 예종조에는 형정이 공정함을 잃었는데 匡救한 바가 없었으니, 이것이 그의 단점이다.”라는 지적은 사관의 공정한 평가라고 여겨진다.

신숙주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평가는 세조의 참모, 나아가 그 시대까지의 최고 참모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세조가 신숙주를 나의 智將이라 일컫고, 나의 魏徵이라 하면서, 사관으로 하여금 이 말을 기록하도록 한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⁸⁰⁾ 신숙주의 줄기에도 역시 “신숙주는 일찍이 중한 명망이 있어, 세종이 문종에게 말하기를, ‘신숙주는 국사를 부탁할 만한 자이다.’라고 하였고, 세조를 遭遇하여 계책이 행해지고 말은 받아들여져, 세조가 일찍이 말하기를, ‘경은 나의 위징이다.’라고 하였고, 매양 큰일을 만나면 반드시 물어보았다. 왕으로 즉위함에 미쳐서는 보양하고 찬도하는

78) 위징은 당 태종을 도와 문물과 제도 정비에 공을 세운 참모이다. 세조는 한명회에 대해서는 나의 장량(장자방), 양성지에 대해서는 나의 제갈량(제갈공명)이라 표현하였다.

79) 『성종실록』, 성종 6년(1475년) 6월 21일.

80) 『세조실록』, 세조 3년(1457년) 3월 15일.

上命叔舟進酒, 視就御前曰: “叔舟書生, 賢而多能也.” 傳曰: “非但書生, 乃智將也, 叔舟乃吾魏徵也.” 顧命史官書之.

공이 많았다.”고 하여, 신숙주가 세종·문종·세조대에 연이어 왕의 신임을 받았음과 함께 세조와 신숙주의 관계를 당나라 태종과 위징의 관계로 비유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⁸¹⁾ 이에 더하여 李承召가 쓴 신숙주의 신도비문에는 세조가 일찍이 ‘제환공에게 管仲과, 漢高祖에게 張良과, 唐太宗에게 魏徵과, 나에게 신숙주는 마찬가지로이다.’⁸²⁾라고 말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역대 최고 참모로서 신숙주가 거론되던 시대 분위기를 알 수가 있다. 신숙주에 대한 평가는 조선후기, 그것도 단종 복권 이후 총절과 의리가 강조된 시점의 평가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의 평가들은 당대나 신숙주 사망 직후의 평가들로서, 후대의 가치와 이념이 개입되지 않다는 점에서는 비교적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I. 맺음말

세조는 왕이 된 후 집권의 명분과 도덕성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본정치, 부국강병책, 왕권의 재확립과 『경국대전』이나 『동국통감』과 같은 학술, 문화 정비 사업에 진력을 다하였고, 이것은 세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세조가 법주사, 상원사 등에 잦은 행차를 한 것 또한 왕권 강화와 민심 수습의 목적이 담겨 있었다. 신숙주는 세조대 최고의 참모로 활약한 만큼 세조에 대한 평가와 신숙주의 평가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81) 『성종실록』, 성종 6년(1475년) 6월 21일.

82) 李承召, 「申叔舟 神道碑文」(1477년).

세조대에 확립된 이러한 왕권 강화와 정치적 기반은 성종대에 이르러 조선 전기 정치, 문화를 완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세조 시대의 정치 질서의 정비와 학술 문화 사업 추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신숙주였다. 세조 집권 후에 신숙주는 병조판서, 우의정 등을 거쳐 1466년 영의정에 올라 세조를 적극적으로 보좌했다. 신숙주가 조선 전기 인재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평가도 보인다. “14차례나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동안 인재를 얻은 것이 가장 성하여 卿相에 이른 자가 많았으니 이는 그의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워낙 밝아서 사사로이 속일 수 없었던 까닭이다.”는 기록은 인재 양성을 통하여 조선 전기 문물과 제도 정비에 기여한 신숙주의 공로가 드러나 있다.

조선 전기 정치적 안정이 필요한 격동기에 신숙주는 세조가 추구한 중앙 집권과 왕권 강화, 민생 안정과 국방 강화 등의 정책 실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수양대군 시절부터 맺은 깊은 인연과 세조라는 왕에 대한 믿음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초기의 정치적 격동기를 잘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 문화적으로 튼튼한 기반을 형성한 바탕에 신숙주와 같은 뛰어난 관료학자가 존재했음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종직, 성현 등 사림파와 훈구파 구분 없이 당대 그의 업적과 활동에 대한 평가들에 대해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신숙주에 대한 평가는 후대의 관점이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인물에 대한 평가가 후대의 가치나 기준에 의해 왜곡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2020.07.14. 투고 / 2020.07.30. 심사완료 / 2020.07.30. 게재확정)

[Abstract]

The Political Role played by Shin Suk-ju in turbulent times
during early Joseon years

Shin, Byung-ju

After becoming the new king, Sejo employed certain pro-public policies while also launching institutions designed to enhance the government's fiscal situation as well as the integrity of the military. By doing so he intended to solidify his leadership, and spawn by such intentions were also several legal or historical publication projects which led to the compilation of *Gyeong'guk Daejeon* and *Dong'guk Tong'gam*. This was all to legitimize his own enthronement and overcome his own immoral image, and these efforts eventually paid off, as they contributed to the bettering of Sejo's overall image. He also frequently visited Buddhist monasteries like Beobju-sa and Sang'weon-sa, in order to appease the people and enhance his authority at the same time.

The evaluation of Shin Suk-ju varies depending on what kind of criteria is (or was) used, and many opinions on King Sejo were (and are) reflected in the opinions on Shin. The king's strengthened ruling authority not to mention accumulated political capital for the government in general was ultimately what enabled all kinds of political and cultural accomplishments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and Shin Suk-ju was an integral part of King Sejo's rule which set off the

entire process. After Sejo took over the throne, Shin served the government as the Minister of Military Affairs as well as the Right Chancellor. In 1466, he became the Central Chancellor and continued to serve Sejo faithfully. Sejo explicitly trusted him to the extent of calling him his most trusted and wise advisor(智將), and virtually on the level of the renowned Chinese figure Wi Jing(魏徵). He even ordered the official historian to write that down in the Official Annals. Also he wrote 『Haedongjegookgi(海東諸國紀)』.

During the turbulent times of Joseon's early years, political stability was what the government most needed, and Shin Suk-ju played the most instrumental part in all sorts of policies conceived for that end,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 authority, reinforced leadership of the king, comforted population and upgraded dynastic defense. Probably, the fact that Shin had already been acquainted with Sejo from the old days when Sejo was still Su'yang Daegun, and that he wholeheartedly believed in him, made this all possible. Shin Suk-ju was indeed one of the most dignified talents, an academician/governmental official, who enabled Joseon to overcome the initial confusions and mistakes and to create a politically and culturally stable platform for future prosperity that would last for centuries to come.

□ Keyword

Shin Suk-ju, Su'yang Daegun, King Sejo, academician/governmental official, 『Haedongjegookgi(海東諸國紀)』

[참고문헌]

『세종실록』, 『단종실록』,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국조방목』
『동국정운』
『保閑齋集』
『연려실기술』
『佔畢齋集』
『해동제국기』

정두희, 『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 연구』, 일조각, 1983.
신병주, 『참모로 산다는 것』, 매경출판, 2019.
이종묵, 『조선의 문화 공간』, 휴머니스트, 2006.
한영우, 『조선 전기사학사연구』, 서울대출판부, 1981.

김현옥, 「성삼문과 신숙주의 책문에 나타난 현실인식 비교」, 『한문화논집』
33, 근역한문학회, 2011.
남지대, 「신숙주 - 공신의 길을 택한 학자」, 『내일을 여는 역사』 6, 내일을
여는 역사, 2001.
손승철, 「해동제국기의 역사지리학적 연구」, 『강원인문논총』 15, 강원대학
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_____, 「『海東諸國紀』의 사료적 가치」, 『한일관계사』 27, 한일관계사학회,
2007.
_____, 「신숙주, 『해동제국기』」, 『韓國史市民講座』 42, 일조각, 2008.
_____,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재인식 ; 『해동제국기』를 통해 본
15세기 조선지식인의 동아시아관 -약탈의 시대에서 공존,공생의 시대

- 로-], 『사림』 41, 수선사학회, 2012.
- 신병주, 「신숙주의 일본 기행문, 『해동제국기』, 『선비문화』 14, 남명학연구원, 2008.
- 안병희, 「신숙주의 생애와 학문」, 『10월의 문화인물』, 국립국어연구원, 2002.
- _____, 「신숙주의 문학과 사상」, 『10월의 문화인물』, 국립국어연구원, 2002.
- _____, 「신숙주와 집현전 학자들」, 『10월의 문화인물』, 국립국어연구원, 2002.
- _____, 「신숙주의 사상과 국제 감각」, 『10월의 문화인물』, 국립국어연구원, 2002.
- 이동희, 「이시애 난에 있어서 한명회, 신숙주의 역모 연루설」, 『전라문화논총』 7,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4.
- 이종묵, 「인왕산 무계정사와 인평대군의 꿈」, 『조선의 문화공간 1』, 휴머니스트, 2006.
- 임용한, 「신숙주의 사상과 국제 감각」, 『내일을 여는 역사』 48, 내일을 여는 역사, 2012.
- 임채명, 「시문(詩文)을 통해 본 신숙주(申叔舟) 가계(家系)의 일본(日本)에 대한 관심」,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 조영빈 외, 「조선초기 지배층의 일본관 - 신숙주의 ‘해동제국기’ 를 중심으로 -」, 『인문논총』 9,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81.
- 한성주, 「조선 세조대 ‘女眞 和解事’에 대한 연구 : 申叔舟의 파견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8, 동북아역사재단, 2012.